

한국인이 생각하는 러시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주)HMM
대표이사

김태춘

1991년 가을,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소련 행 비행기를 탔다. 그로부터 어느새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금싸라기 같은 나의 청춘도 러시아의 개혁과 함께 그렇게 지나갔다.

최근 러시아는 세계무역협회(WTO)가입을 앞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푸틴의 슬로건처럼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 중인 것이다.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없애 투명성을 강조하는 한편 낡은 것들을 부수고 새로운 기반을 건설하여 마치 국가를 다시 만드는 것 같다. '언제 우리가 공산주의를 했던가?' 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했다. 사람들도 자본주의 생활에 젖어들었다. 물가는 살인적으로 비싸졌고 미국, 독일과 같은 여느 선진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명품점들이 줄줄이 오픈되어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사실 한국인이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기 시작한 것은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이후이다.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은 더 이상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던 해도 1988년이다. 우리는 동일선상에서 러시아와 세계경제 속에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과 러시아인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도 우리 사회엔 좌파 우파논쟁이 뜨겁다. 물론 이러한 논쟁의 뒤편에는 마지막 공산주의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감이 공존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에는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없다. 물론 주가 초프가 이끄는 공산당이 있고 이를 지지하는 계층은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러시아가 다시 구 소련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드니 정부가 복지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시민 단체에 불과하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인이 러시아인을 만나게 되면 기본적인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즉,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을 러시아를 놓고 변절주의자 또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우파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러시아를 보고는 뭔가 부족했던 우리의 70년대를 회상할 것이다. 가끔 우리는 러시아가 세계 대륙의 6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반쪽을 지배했던 강한 나라임을 잊고 사는 것 같다.

필자는, 2년 전 INKE 모스크바의장 자격으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벤처대회를 주관했다. 당시 많은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벤처 기업인들은 모스크바가 초행길인 경우가 많았고 생각보다 급변한 러시아 시장에 대한 놀라움을 토로했다. 올해 러시아 IT분야에 대한 수출입 금액은 7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넘치는 오일 머니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2020년에는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점유율이 25%를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GPS보다 월등하고 정확한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글로비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러시아시장에서 한국 벤처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HMM(www.hmmkorea.com)은 모스크바 내에 한국벤처제품 전시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약 50여 벤처회사들이 입주되어 있고 HMM의 현지 직원의 분석을 통해 시장 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만일 생산 조립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HMM의 LCD TV조립 공장을 통해 시장 진입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전자양판점을 통해 판매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HMM의 핀란드 보세창고에 적재하여 HMM의 디스트리뷰터 총판점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HMM의 한국 본사는 상품화 작업팀을 운영하여 러시아어 매뉴얼, OSD, 서비스 카드를 직접하며 러시아 전역에 있는 HMM의 서비스 센터에서 소비자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프론티어 마켓인 러시아 시장에 한국벤처기업들의 많은 진출을 바란다.

가끔 우리는 러시아가 세계 대륙의 6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반쪽을 지배했던 강한 나라임을 잊고 사는 것 같다.